www.khidi.or.kr, www.khiss.go.kr

KHIDI Brief

발행일_ 2021. 3. 18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권순만

보건산업브리프 Vol. 323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 주요 4개국 대상(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

외국인환자유치단 **이행신, 홍현아, 오주연, 오세문**

Contents

Ⅰ. 서론
Ⅱ. 외국인환자 유치 10년간 추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Ⅲ. 주요 유치 국가별 거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Ⅰ 서 론

- 우리나라는 2009년 의료법(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 이래 정부 주도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 누적 환자 수는 약 276만명으로 연평균 2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지난 10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장하는 동안에도 2014년 루블화 폭락, 2015년 메르스 사태, 2017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의 외부 환경요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쳤음
- 더군다나, 2020년 초에 시작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급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에는 의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유치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을 대상으로 거시적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영향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부 영향 변수 출현에 따른 대응과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외국인환자 유치 10년간 추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외국인환자 유치 10년간 추이

- 20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연평균 23.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9년 49만 명을 유치, 누적 수 276만 명에 달함

〈표 1〉 외국인환자(실환자) 유치현황 (2009년~2019년)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외래	56,286 (93.5)	73,802 (90.2)	110,352 (90.2)	144,655 (90.7)	191,081 (90.5)	242,646 (91.0)	272,400 (91.8)	337,913 (92.8)	293,896 (91.4)	351,088 (92.6)	473,015 (95.1)
입원	3,915 (6.5)	7,987 (9.8)	11,945 (9.8)	14,809 (9.3)	20,137 (9.5)	23,855 (9.0)	24,489 (8.2)	26,276 (7.2)	27,678 (8.6)	27,879 (7.4)	24,449 (4.9)
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321,574	378,967	497,464

※ 자료: 외국인환자유치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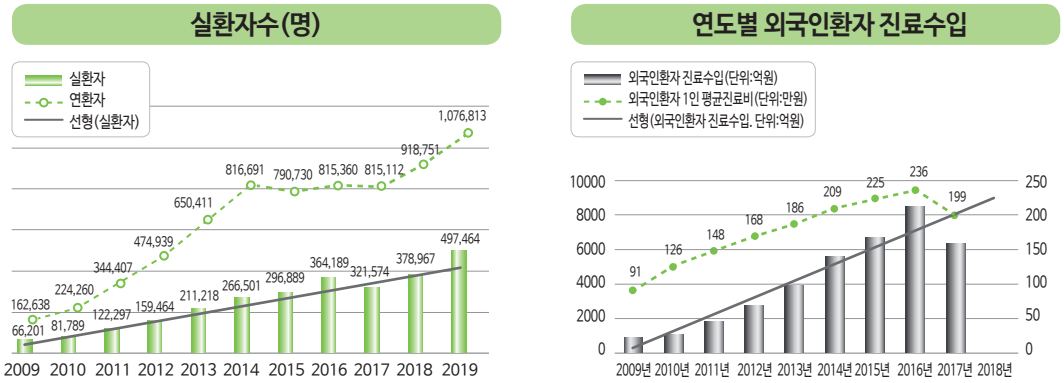
- 외국인환자의 증가에 따라 진료 수입도 증가하여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 진료 수입은 3조원을 넘었음

〈표 2〉 외국인환자 연도별 진료수입 [1)]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진료수입	547	1,032	1,809	2,673	3,934	5,569	6,694	8,606	6,399

1) '진료비' 항목은 2018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의 필수 보고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진료비 공식 집계는 2017년까지만 제시됨.



[그림 1] 외국인환자 실환자 수 및 진료수입 추이

◉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8개국[2]의 외국환자 비중은 2009년 58%에서 2019년 7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3〉 주요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2009년~2019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9,481 (29.8)	99,059 (33.4)	127,648 (35.0)	99,837 (31.0)	118,310 (31.2)	162,868 (32.7)
일본	12,997 (21.6)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8.0)	14,336 (5.4)	18,884 (6.4)	26,702 (7.3)	27,283 (8.5)	42,563 (11.2)	68,411 (13.8)
미국	13,976 (23.2)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35,491 (13.3)	40,986 (13.8)	48,788 (13.4)	44,440 (13.8)	45,213 (11.9)	58,358 (11.7)
러시아	1,758 (2.9)	5,098 (6.2)	9,650 (7.9)	16,438 (10.3)	24,026 (11.4)	31,829 (11.9)	20,856 (7.0)	25,533 (7.0)	24,859 (7.7)	27,185 (7.2)	29,897 (6.0)
몽골	850 (1.4)	1,860 (2.3)	3,266 (2.7)	8,407 (5.3)	12,034 (5.7)	12,803 (4.8)	12,522 (4.2)	14,798 (4.1)	13,877 (4.3)	14,042 (3.7)	17,918 (3.6)
베트남	327 (0.5)	921 (1.1)	1,336 (1.1)	2,231 (1.4)	2,988 (1.4)	3,728 (1.4)	5,316 (1.8)	8,746 (2.4)	7,447 (2.3)	7,532 (2.0)	15,133 (3.0)
태국	133 (0.2)	290 (0.4)	417 (0.3)	721 (0.5)	899 (0.4)	1,211 (0.5)	2,286 (0.8)	3,933 (1.1)	6,137 (1.9)	8,998 (2.4)	14,162 (2.8)
카자흐	128 (0.2)	346 (0.4)	732 (0.6)	1,633 (1.0)	2,890 (1.4)	8,029 (3.0)	12,567 (4.2)	15,010 (4.1)	12,566 (3.9)	12,987 (3.4)	13,424 (2.7)
인도네시아	183 (0.3)	283 (0.3)	424 (0.3)	689 (0.4)	1,067 (0.5)	1,630 (0.6)	1,751 (0.6)	2,338 (0.6)	2,385 (0.7)	3,270 (0.9)	5,716 (1.1)
캐나다	984 (1.6)	1,714 (2.1)	2051 (1.7)	2756 (1.7)	2770 (1.3)	2,943 (1.1)	3,206 (1.1)	4,123 (1.1)	3,966 (1.2)	4,098 (1.1)	4,996 (1.0)
우즈벡	113 (0.2)	298 (0.4)	491 (0.4)	824 (0.5)	1,358 (0.6)	1,904 (0.7)	2,634 (0.9)	4,103 (1.1)	3,253 (1.0)	3,915 (1.0)	4,194 (0.8)
UAE	17 (0.1)	54 (0.1)	158 (0.1)	342 (0.2)	1,151 (0.5)	2,633 (1.0)	2,946 (1.0)	3,562 (1.0)	3,384 (1.1)	3,034 (0.8)	4,089 (0.8)
싱가포르	168 (0.3)	329 (0.4)	468 (0.4)	728 (0.5)	1,211 (0.6)	1,490 (0.6)	1,652 (0.6)	2,452 (0.7)	2,544 (0.8)	2,566 (0.7)	2,971 (0.6)
기타	23,842 (39.6)	25,434 (31.1)	34,062 (27.8)	41,866 (26.3)	55,150 (26.1)	68,993 (25.9)	72,224 (24.3)	76,453 (21.0)	69,596 (21.6)	85,254 (22.5)	95,327 (19.2)
합계	60,201 (100.0)	81,789 (100.0)	122,297 (100.0)	159,464 (100.0)	211,218 (100.0)	266,501 (100.0)	296,889 (100.0)	364,189 (100.0)	321,574 (100.0)	378,967 (100.0)	497,464 (100.0)

※ 자료: 외국인환자유치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국가 :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 총 24개 진료과목 중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 진료과[3]는 지난 11년간 전체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최근 3년간 피부과·성형외과 등 피부·미용 관련 진료과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 진료과별 외국인환자(실환자) 현황(2009년~2019년)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내과통합[4]	18,398 (28.5)	23,632 (23.3)	34,330 (22.2)	45,994 (22.2)	68,453 (24.4)	79,377 (22.3)	79,091 (21.3)	85,075 (20.0)	80,507 (20.2)	89,975 (19.4)	113,442 (19.2)
성형외과	2,851 (4.4)	4,708 (4.6)	10,387 (6.7)	15,898 (7.7)	24,075 (8.6)	36,224 (10.2)	41,263 (11.1)	47,881 (11.3)	48,849 (12.3)	66,969 (14.4)	90,494 (15.3)
피부과	6,015 (9.3)	9,579 (9.4)	12,978 (8.4)	17,224 (8.3)	25,101 (9.0)	29,945 (8.4)	31,900 (8.6)	47,340 (11.1)	43,327 (10.9)	63,671 (13.7)	85,194 (14.4)
검진센터	8,980 (13.9)	13,272 (13.1)	19,894 (12.9)	23,898 (11.5)	28,135 (10.0)	35,858 (10.1)	34,284 (9.3)	39,743 (9.3)	39,156 (9.8)	41,230 (8.9)	54,185 (9.2)
산부인과	3,965 (6.2)	5,656 (5.6)	7,568 (4.9)	10,905 (5.3)	15,899 (5.7)	19,039 (5.4)	18,986 (5.1)	23,081 (5.4)	20,145 (5.1)	24,472 (5.3)	41,007 (6.9)
정형외과	3,196 (5.0)	4,975 (4.9)	6,876 (4.4)	9,643 (4.7)	14,597 (5.2)	19,211 (5.4)	22,468 (6.1)	24,121 (5.7)	22,730 (5.7)	23,864 (5.1)	26,068 (4.4)
신경외과	1,674 (2.6)	2,177 (2.1)	3,053 (2.0)	5,144 (2.5)	7,897 (2.8)	10,307 (2.9)	11,013 (3.0)	12,513 (2.9)	13,068 (3.3)	14,052 (3.0)	15,476 (2.6)
일반외과	1,903 (3.0)	2,793 (2.7)	4,304 (2.8)	6,530 (3.2)	10,232 (3.7)	12,465 (3.5)	13,415 (3.6)	13,595 (3.2)	11,238 (2.8)	12,810 (2.8)	15,087 (2.6)
치과	2,032 (3.2)	3,828 (3.8)	5,220 (3.4)	7,001 (3.4)	8,878 (3.2)	11,707 (3.3)	11,309 (3.1)	12,984 (3.1)	13,307 (3.3)	12,483 (2.7)	15,398 (2.6)
안과	1,921 (3.0)	4,507 (4.4)	5,821 (3.8)	7,933 (3.8)	9,421 (3.4)	14,618 (4.1)	11,230 (3.0)	12,335 (2.9)	11,402 (2.9)	10,938 (2.4)	13,149 (2.2)
한방통합[5]	1,897 (2.9)	4,191 (4.1)	9,793 (6.3)	9,464 (4.6)	9,554 (3.4)	11,743 (3.3)	13,218 (3.6)	18,011 (4.2)	20,343 (5.1)	22,063 (4.8)	23,723 (3.9)
그 외 진료과	11,632 (18.0)	22,274 (21.9)	34,592 (22.3)	47,425 (22.9)	58,067 (20.7)	74,895 (21.1)	82,316 (22.2)	88,701 (20.9)	73,810 (18,6)	81,925 (17.6)	98,093 (16.6)
합 계	64,464 (100.0)	101,592 (100.0)	154,816 (100.0)	207,059 (100.0)	280,309 (100.0)	355,389 (100.0)	370,493 (100.0)	425,380 (100.0)	397,882 (100.0)	464,452 (100.0)	590,866 (100.0)

※ 자료: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적파급효과(산업연구원)

■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

◉ 2019년 방한 외국인환자 수는 497,4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총 3조 331억 원으로 추정됨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의 지출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8년 투입산출표(실측 표)의 비경쟁 수입형 국산 거래표(생산자가격)를 사용하였으며, 기본 투입산출표의 산업부문을 재구성하여 원하는 투입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함

3)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진료과목 : 내과통합, 성형, 피부, 검진

4) 내과통합 :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5)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

〈표 5〉 각종 유발계수의 개념 및 행렬

구분	개념	행렬식
생산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단위	$(I-A^d)^{-1}$ (A^d : 국산투입계수행렬, I : 항등행렬)
부가가치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widehat{A^v}(I-A^d)^{-1}$ ($\widehat{A^v}$: 부가가치계수 대각행렬)
노동 유발계수	특정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고용자 수 및 취업자 수)	$\hat{l}(I-A^d)^{-1}$ ($\hat{l}$: 노동계수 대각행렬)

◉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 부가가치 2조 5,678억 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4만 4,364명, 임금근로자 3만 782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생산유발액)** 2019년 방한 외국인환자(49만 7,464명) 및 동반자의 의료관광 총지출(3조 331억 원)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5조 4,981억 원 규모이며 생산유발액이 큰 업종은 보건의료 〉쇼핑(도소매) 〉숙박 〉음식점 순으로 외국인 환자 1인의 유치로 인해 발생한 생산유발액은 약 1,105만 원 수준임
- **(부가가치유발액)** 2019년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조 5,6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의료관광 부문에 미친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7,728억 원임. 부가가치유발액이 큰 업종은 보건의료 〉쇼핑(도소매) 〉숙박 〉음식점 순이며, 외국인 환자 1인의 유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유발액은 516만원 수준임
- **(취업유발인원)** 전업환산기준 2019년 취업유발인원은 4만 4,364명이며, 의료관광산업에서 발생한 취업유발인원은 3만 5,517명임. 취업유발인원이 큰 부문은 쇼핑 〉보건의료 〉음식점 〉숙박 순이며 외국인 환자 1,000명 유치로 인해 발생한 취업유발인원은 89명 수준임
- **(고용유발인원)** 전업환산기준 2019년 고용유발인원은 3만 782명이며, 의료관광산업에서 발생한 고용유발인원은 2만 4,539명임. 고용유발인원이 큰 부문은 보건의료 〉쇼핑 〉숙박 〉음식점 순이며, 외국인 환자 1,000명 유치로 인해 발생한 고용유발인원은 62명 수준임로 인해 발생한 고용유발인원은 62명 수준임

〈표 6〉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파급효과(2019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동	동남아	기타	전체
의료관광지출	1,093,859	257,704	277,000	184,754	123,439	107,653	148,918	234,663	605,084	3,033,073
내과통합	151,964	36,185	59,874	45,632	32,657	14,424	26,842	15,840	128,693	512,110
성형외과	313,809	134,136	32,860	14,681	7,080	30,645	10,629	137,192	46,677	727,709
피부과	210,664	49,344	20,133	5,718	7,392	5,531	5,295	19,547	40,126	363,751
검진센터	35,709	1,310	20,468	21,806	11,540	16,056	3,053	18,054	109,869	237,865
산부인과	122,728	6,354	13,389	13,928	8,992	5,552	3,334	5,043	23,392	202,710
정형외과	41,455	828	14,247	8,831	5,594	4,746	5,543	4,095	34,418	119,756
신경외과	30,438	182	4,253	7,024	6,744	2,875	7,726	1,921	26,520	87,683
일반외과	16,202	1,015	9,794	15,934	6,990	3,024	13,733	3,976	32,870	103,539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동	동남아	기타	전체
치과	23,076	2,839	9,885	4,952	3,622	6,314	3,326	4,918	16,698	75,629
안과	17,585	441	9,424	3,993	3,248	2,130	2,016	2,684	17,521	59,041
한방통합	14,561	18,862	3,589	2,690	3,995	1,556	3,515	3,474	16,572	68,813
기타	115,670	6,209	79,084	39,565	25,586	14,800	63,907	17,919	111,728	474,468
생산유발액	1,975,495	463,452	505,493	333,534	224,763	195,774	267,270	423,839	1,108,458	5,498,079
내과통합	275,250	65,145	109,536	82,326	59,457	26,391	48,264	28,936	235,639	930,944
성형외과	562,329	239,240	58,749	26,167	12,734	55,235	18,983	245,781	83,956	1,303,174
피부과	381,319	89,818	36,979	10,432	13,519	10,089	9,674	35,706	74,019	661,554
검진센터	65,042	2,372	37,980	40,536	21,273	29,440	5,651	33,187	203,117	438,598
산부인과	222,385	11,513	24,436	25,016	16,351	10,114	6,030	9,196	42,822	367,864
정형외과	75,169	1,496	26,130	15,879	10,175	8,617	10,011	7,443	63,114	218,035
신경외과	55,054	331	7,793	12,584	12,204	5,201	13,751	3,468	48,284	158,670
일반외과	29,235	1,843	17,679	28,431	12,636	5,486	24,329	7,165	59,386	186,191
치과	41,676	5,103	18,007	8,906	6,566	11,483	6,058	8,975	30,591	137,364
안과	31,834	799	17,217	7,263	5,932	3,890	3,684	4,884	31,991	107,493
한방통합	26,428	34,529	6,664	4,939	7,332	2,858	6,509	6,400	30,797	126,457
기타	209,774	11,263	144,324	71,055	46,582	26,971	114,327	32,699	204,743	861,737
부가가치유발액	933,400	217,347	233,308	155,372	104,697	91,550	125,241	197,751	509,151	2,567,817
내과통합	129,913	30,526	50,444	38,373	27,698	12,297	22,580	13,374	108,285	433,489
성형외과	266,459	112,908	27,615	12,331	5,982	25,967	8,934	115,452	39,222	614,870
피부과	180,019	41,737	16,970	4,813	6,279	4,709	4,463	16,504	33,782	309,277
검진센터	30,636	1,106	17,271	18,390	9,826	13,700	2,577	15,260	92,514	201,283
산부인과	104,946	5,369	11,277	11,707	7,623	4,725	2,806	4,256	19,682	172,392
정형외과	35,464	699	12,006	7,424	4,743	4,033	4,665	3,455	28,964	101,453
신경외과	25,998	154	3,584	5,902	5,709	2,440	6,491	1,619	22,305	74,202
일반외과	13,818	858	8,239	13,385	5,915	2,569	11,531	3,349	27,630	87,295
치과	19,691	2,394	8,324	4,163	3,068	5,370	2,802	4,152	14,051	64,014
안과	15,028	372	7,938	3,360	2,758	1,814	1,699	2,265	14,739	49,974
한방통합	12,464	15,976	3,029	2,266	3,397	1,328	2,968	2,937	13,960	58,325
기타	98,964	5,248	66,611	33,256	21,700	12,597	53,725	15,127	94,016	401,243
취업유발인원	16,673	3,564	3,954	2,568	1,885	1,631	2,018	3,316	8,756	44,364
내과통합	2,368	503	863	632	498	227	367	237	1,859	7,555
성형외과	4,498	1,771	430	191	100	440	140	1,855	626	10,053
피부과	3,267	728	295	84	116	85	78	293	597	5,542
검진센터	580	19	312	347	189	255	48	279	1,649	3,678
산부인과	1,918	91	191	189	136	85	47	75	338	3,071
정형외과	651	12	208	120	85	71	78	60	500	1,785
신경외과	469	3	62	94	99	42	100	27	374	1,271
일반외과	245	15	134	209	102	45	174	55	449	1,429
치과	352	39	140	68	54	96	49	73	242	1,112
안과	273	6	135	58	50	33	30	39	250	875
한방통합	230	286	55	40	64	25	55	54	254	1,065
기타	1,820	90	1,129	536	390	227	852	267	1,619	6,930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동	동남아	기타	전체
고용유발인원	11,282	2,608	2,767	1,868	1,258	1,098	1,506	2,366	6,030	30,782
내과통합	1,569	366	597	461	333	147	271	159	1,283	5,187
성형외과	3,227	1,362	332	149	72	313	108	1,388	470	7,422
피부과	2,175	497	200	58	75	56	53	196	398	3,709
검진센터	370	13	202	218	117	164	30	181	1,089	2,384
산부인과	1,267	64	134	141	92	57	34	51	233	2,072
정형외과	428	8	142	89	57	48	56	41	343	1,213
신경외과	314	2	42	71	69	29	78	19	265	891
일반외과	167	10	98	162	71	31	140	40	330	1,050
치과	238	29	99	50	37	64	33	49	166	766
안과	182	4	94	40	33	22	20	27	175	597
한방통합	150	189	35	27	41	16	35	35	164	692
기타	1,195	63	790	401	261	151	647	180	1,113	4,800

◉ 외국인환자 유치는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1원당 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은 1.813원으로 승용차(2.580원) 보다는 작지만 이동전화기(1.594) 보다는 크고,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부가가치계수)은 0.847원으로 승용차(0.714원) 및 이동전화기(0.489원)를 크게 상회함
- 무엇보다도 외국인환자 유치의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취업유발계수)은 14.627명으로 승용차(7.748명) 및 이동전화기(3.296명)의 대략 2배 및 4배 수준에 육박함
-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고용유발계수) 또한 승용차(6.262명) 및 이동전화기(2.506) 보다 대략 2배 및 4배 이상 더 높은 10.149명에 이름

〈표 7〉 주요 상품과의 유발승수(2018년 투입산출표 기준)

구분	외국인환자 유치	승용차 (IO 소분류 4011)	이동전화기 (IO 기본부문 3512)
1원당 생산유발액(원)	1.813	2.580	1.594
1원당 부가가치유발액(원)	0.847	0.714	0.489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명)	14.627	7.748	3.296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명)	10.149	6.262	2.506

※ 자료: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제적파급효과(산업연구원)

[그림2] 외국인환자 국내 의료관광 지출 타 산업 비교 현황

Ⅲ 주요 국가별 거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자료

⊙ 2009년 1월~ 2019년 12월까지 월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자료를 활용함

■ 영향 요인의 선정과 자료 확보

⊙ 영향요인은 앞서 관광 수요 예측 등 관련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여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요인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도별로 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추정함

⊙ 각 국가별 특성 및 상호연관성과 시간에 따른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총 생산, 환율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와, 보건 관련 지출, 의사 수, 병상 수 등과 같은 의료관련 지표, 해당 국의 외교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요인, 콘텐츠 수출액, 인터넷 보급률, 항공 운항 수 등과 같은 문화 및 기술, 교통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함

⊙ 변수별 자료는 통계청, 은행, 국토해양부, OECD 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함

〈표 8〉 외국인환자 수요 관련 변수 정의

영향요인	분석변수	단위	출처
정치적 요인	한중 외교갈등('17년 07월~'18년 12월)		
	한일 외교갈등('19년 07월~12월)		
경제적 요인	1인당 GDP	천 달러	World Bank
	한국-상대국 수출액	천 달러	통계청
	한국-상대국 수입액	천 달러	통계청
	대 원화 환율	원	우리은행
문화적 요인	콘텐츠 수출액	천 달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적 요인	인터넷 보급율	%	World Bank
	스마트폰 사용자 수	명	World Bank
교통 요인	한국-상대국 운항 편수	편수	Ariportal
보건 요인	1인당 보건 지출액	천 달러	World Bank
	정부의 1인당 보건 지출액	천 달러	World Bank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명	World Bank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개	World Bank
보건 요인	1인당 알콜 소비량	리터	World Bank
	흡연율	%	World Bank
	메르스 발생('15년 6월~8월)		

■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

⊙ 본고에서는 Bass의 확산모형[6]을 활용하여 모방계수와 혁신계수를 추정하고, 선행 연구에서 고찰한 거시환경요인을 적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Bass 모형은 상품과 서비스의 채택이 환산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확산모형으로 Bass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관광 분야에서 Bass 확산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예측하는 실증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의료관광의 성장 과정은 기존 혁신요인의 확산과정과 유사하여 혁신확산모형의 적용을 통한 확산과정을 파악하기에 적합함
- 실제 한국으로 입국한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 전 정보 입수 경로(문화체육관광부, 2020)는 2019년 기준 지인의 구전으로 인한 정보 입수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흥원에서 실시한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2019)에서 환자의 한국의료기관 선택 경로는 가족 및 지인의 추천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혁신구매자와 모방구매자로 분류할 수 있음

6) Bass의 확산 모형은 주어진 한 집단 내의 수요자들 간에 특정한 상품이나 정보가 퍼지는 속도를 이론 모형화한 것으로 확산과정이 향후 계속되는 형태를 방정식으로 추정한 후 이를 기초하여 예측하는 것임

- 혁신구매자는 한국 의료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구매자를 의미함
- 모방구매자는 타인을 따라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를 의미함
- Bass의 확산모형은 이러한 구매자들의 구매성향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의 유치 경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예측 가능함

〈표 9〉 Bass 확산모형

$$s(t) = p + q \cdot x(t-1) \cdot N - x(t-1)$$

- p : 혁신계수
- q : 모방계수
- x(t-1) : (t-1)시점까지의 누적 환자 수
- N : 잠재 환자 수

◉ Bass의 확산모형을 활용한 연구모형은 [표 9]와 같음

- 경제·기술·보건·계절 요인은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치적 요인은 국가에 따라 적용하였음
-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방계수와 혁신계수, 계절 요인 및 각 국가별 정치적 요인은 고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음
- 각 변수의 단위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자연로그를 취함

〈표 10〉 연구모형

$$s(t) = \beta_0 + \beta_1 \cdot p + \beta_2 \cdot q + \beta_3 \cdot Econ + \beta_4 \cdot Tech + \beta_5 \cdot HC + \beta_6 \cdot POL + \beta_7 \cdot Trans + \beta_8 \cdot dm_1 + \beta_9 \cdot dm_2 + \beta_{10} \cdot dm_3$$

- p : 혁신계수(innovation coefficient)
- q : 모방계수(imitation coefficient)
- Econ : 경제적 요인
- Tech : 기술적 요인
- HC : 보건적 요인
- POL : 정치적 요인
- Tras : 교통적 요인
- dm : 계절 요인

■ 주요 국가별 분석 결과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중국

◉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유치 외국인환자 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임

〈표 11〉 중국 환자 분석 결과

요인	변수	Coef.	Std.Err	t	P
확산 요인	혁신계수	97.66138	2.01E-05	9.69	0.000***
	모방계수	98.03621	1.25E-13	9.69	0.000***
경제적 요인	1인당 GDP(log)	-0.67021	0.762672	-2.97	0.004***
	한국-중국 수출액(log)	0.11000	0.193318	4.08	0.000***
	한국-중국 수입액(log)	0.05398	0.161895	1.87	0.064**
문화적 요인	콘텐츠 수출액(log)	-0.74485	0.195296	-5.90	0.000***
보건 요인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개인(log)	4.95824	2.913337	4.54	0.000***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정부(log)	-3.10922	2.338828	-3.14	0.002***
	메르스('15년 6월 ~8월)	-0.04910	0.074334	-3.00	0.003***
계절 요인	계절더미(3월~5월)	0.01420	0.032779	0.82	0.416
	계절더미(6월~8월)	0.04651	0.032582	2.69	0.008***
	계절더미(9월~11월)	0.02436	0.036774	1.25	0.215
정치적 요인	THAD 갈등('17년 07월~'18년 12월)	-0.08860	0.055704	-3.63	0.000***
Number of obs = 120, F(12, 106)=428.15(p<0.000), R2=0.9813, Adj R2=0.9790, Root MSE = 0.11869					

* : p<0.10, ** : p<0.05, *** : p<0.01

- 중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환자 유치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계수(β=97.66138, p<0.001)와 모방계수(β=98.03621, p<0.001)가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 중 1인당 GDP(β=-0.67021, p<0.05)는 중국 환자의 의료관광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액(β=0.11000, p<0.001), 한국과 중국의 수입액(β=0.05398, p<0.0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적 요인인 콘텐츠 수출액(β=-0.74485, p<0.001)은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β=4.95824, p<0.001)은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β=-3.10922, p<0.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질병 메르스(MERS)에 의한 영향(β=-0.04910, p<0.005)은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하여 여름(6월~8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요인으로는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갈등 기간을 살펴본 결과, 갈등 기간인 2017년 7월~2018년 12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다른 기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일본

◉ 일본 환자는 2009년 이후 10년간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에서 3위로 중국과 미국 다음 순위이며, 2019년 처음으로 미국 환자보다 많은 일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함. 지난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외국인환자 전체 연평균 증가율 23.5%에는 다소 못 미침

〈표 12〉 일본 환자 분석 결과

요인	변수	Coef.	Std.Err	t	P
확산 요인	혁신계수	-33.55739	3.74E-05	-4.01	0.000***
	모방계수	-32.41106	0.000000	-3.87	0.000***
경제적 요인	한국-일본 수출액(log)	0.16414	0.081930	4.88	0.000***
	대 원화 환율(log)	0.36118	0.158538	6.78	0.000***
보건 요인	메르스('15년 '6월~8월)	-0.04856	0.068898	-1.71	0.090*
계절 요인	계절더미(3월~5월)	0.09681	0.032039	3.04	0.003***
	계절더미(6월~8월)	-0.00540	0.033272	-0.16	0.870
	계절더미(9월~11월)	0.02276	0.032851	0.70	0.486
정치적 요인	한·일 외교갈등('19년 07월~12월)	-0.02894	0.079357	-0.73	0.467
Number of obs = 120, F(8, 110)=153.43(p<0.000), R2=0.9262, Adj R2=0.9202, Root MSE = 0.12380					

* : p<0.10, ** : p<0.05, *** : p<0.01

◉ 일본 환자의 확산 요인과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계수(β=-33.55739, p<0.001)와 모방계수(β=-32.41106, p<0.001)가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 중 한국-일본 수출액(β=0.16414, p<0.001)과 대 원화 환율(β=0.36118, p<0.001)은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요인 중 질병 메르스(MERS)에 의한 영향(β=-0.048560, p<0.10)은 일본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하여 봄(3월~5월)에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요인으로는 외교 갈등으로 인한 갈등 기간을 살펴본 결과, 외교 갈등 기간인 2019년 7월~12월 기간 동안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미국

◉ 미국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래 3년간 유치 실적 1위국이었으나, 2012년 중국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2위국을 유지함. 미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23.2%에서 2019년 11.7%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표 13〉 미국 환자 분석 결과

변수	요인	Coef.	Std.Err	t	P
확산 요인	혁신계수	178.96320	1.50E-05	10.38	0.000***
	모방계수	179.94910	0.000000	10.38	0.000***
경제적 요인	1인당 GDP(log)	0.97724	0.747673	3.25	0.002***
	한국-미국 수출액(log)	0.19593	0.084520	3.49	0.001***
	한국-미국 수입액(log)	0.28760	0.083602	4.87	0.000***
기술적 요인	스마트폰 사용자(log)	1.41196	0.248802	7.60	0.000***
보건 요인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개인(log)	2.36070	1.409120	3.67	0.000***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정부(log)	-5.28452	1.205284	-8.23	0.000***
	메르스('15년 6월-8월)	-0.096742	0.036776	-2.63	0.010**
계절 요인	계절더미(3월~5월)	0.14791	0.019670	4.01	0.000***
	계절더미(6월~8월)	0.15857	0.018280	4.62	0.000***
	계절더미(9월~11월)	0.21073	0.020786	5.40	0.000***

Number of obs = 120, F(11, 107)=117.11(p<0.000), R2=0.9293, Adj R2=0.9213, Root MSE = 0.06501

* : p<0.10, ** : p<0.05, *** : p<0.01

- 미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계수(β=178.96320, p<0.001)와 모방계수(β=179.94910, p<0.001)가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계수(β=178.96320, p<0.001)와 모방계수(β=179.94910, p<0.001)가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 중 1인당 GDP(β=0.97724, p<0.005), 한국-미국 수출액(β=0.19593, p<0.001), 한국-미국 수입액(β=0.28760, p<0.001)이 미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요인 중 스마트폰 사용자 수(β=1.41196, p<0.001)는 미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β=2.36070, p<0.001)은 미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β=-5.28452,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질병 메르스(MERS)에 의한 영향(β=-0.07524, p<0.01)은 미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하여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에 미국 환자의 의료관광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러시아

◉ 러시아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후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7월 루블화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임. 2015년 러시아 환자는 전년대비 34.5%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증가 추세는 둔화하고 있음

〈표14〉 러시아 환자 분석 결과

요인	변수	Coef.	Std.Err	t	P
확산 요인	혁신계수	109.12350	4.84E-05	7.61	0.000***
	모방계수	109.56220	0.000000	7.63	0.000***
경제적 요인	1인당 GDP(log)	0.43571	0.510532	2.75	0.007***
	한국-러시아 수출액(log)	0.21612	0.085416	3.89	0.000***
기술적 요인	인터넷 보급률	0.62021	0.006131	4.43	0.000***
보건 요인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개인(log)	-1.48910	2.333391	-3.62	0.000***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액-정부(log)	1.44463	2.257574	3.17	0.002***
	메르스('15년 6월-8월)	-0.06684	0.089183	-2.30	0.023**
계절 요인	계절더미(3월~5월)	0.09236	0.042224	3.42	0.001***
	계절더미(6월~8월)	0.02068	0.043896	0.76	0.448
	계절더미(9월~11월)	0.15195	0.043591	4.97	0.000***
기타 요인	루블화 폭락('14년 07월 ~ '19년 12월)	0.05245	0.104146	-0.95	0.345

Number of obs = 120, F(11, 107)=161.19(p<0.000), R2=0.9476, Adj R2=0.9417, Root MSE = 0.15549
* : p<0.10, ** : p<0.05, *** : p<0.01

◉ 러시아 환자의 확산 요인과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혁신계수(β=109.12350, p<0.001)와 모방계수(β=109.56220 p<0.001)가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요인 중 1인당 GDP(β=10.43571, p<0.001), 한국-러시아 수출액(β=0.21612, p<0.001)이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요인 중 인터넷 보급률(β=0.62021, p<0.001)이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β=-1.48910, p<0.001)은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β=1.44463, p<0.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요인 중 질병 메르스에 의한 영향(β=-0.06684, p<0.05)은 러시아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하여 봄(3월~5월), 가을(9월~11월)에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요인으로 루블화 폭락 기간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인 2014년 07월~2019년 12월의 기간과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및 시사점

■ 결 론

- 본 연구에서 적용한 Bass의 확산모형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료기관 선택 경로 중 가족 및 지인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적합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혁신계수와 모방계수의 분석 결과, 중국, 미국, 러시아는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은 유의적으로 양(+) 영향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임
-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는 일본은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양(+)의 영향을, 음(-)의 영향을 나타냄. 반면, 환율의 영향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상대국 간 수출액은 4개국 모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상대국 간 수입액은 중국과 미국에서만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문화적 요인인 콘텐츠 수출액에 따른 영향은 중국의 경우만 유의적으로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적 요인인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러시아, 미국에서 각각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보였음
- 개인의 1인당 보건 지출액은 중국과 미국에서는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러시아는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정부의 1인당 보건 지출액은 중국과 미국에서는 음(-)의 영향이었으나, 러시아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과 정부의 보건지출액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음
- 질병 요인인 메르스(MERS)에 의한 영향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4개국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절요인은 분기별로 주기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겨울(12월~2월)을 제외하고 4개국 모두 봄(3월~5월)과 가을(9월~11월)에는 유의적으로 양(+)의 영향을 받음. 여름(6월~8월)은 중국, 미국, 러시아에서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요인으로는 중국은 사드 갈등, 일본은 한·일 외교 갈등,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에 따른 유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나타남

■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보건 및 정치적 요인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함
  - 일본은 중국, 미국, 러시아와는 달리 대 엔화 환율변동에 더 영향을 받았고, 양국간 교역(수출액, 수입액)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음.
  - 1인당 보건 지출액의 경우 개인별 지출액과 정부 지출액이 국가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보건정책과 인프라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메르스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컨티젼시 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사드 등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향후 정치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체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시장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결과가 향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악재가 되는 요인은 극복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람

◉ 단,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향 요인은 거시적 환경요인에 국한되어 있고, 여러 요인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요인별로 상호 영향에 의해 어떠한 요인이 핵심영향 요인인지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각 나라별로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 요인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영향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유치 실적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그 영향 요인을 최초로 분석한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거시환경 요인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조절 가능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나 제도, 투입예산, 진료비, 진료과목 등 조절 가능한 변수를 설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정부 정책 방향과 사업추진 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집필자 : 외국인환자유치단 이행신, 홍현아, 오주연, 오세문 ◉ 문의 : 02-751-3513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